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비대면 교육 참가자 모집 “기후변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서워요”

- 3개 국립기관 사회적 소외계층 위해 생태교육 프로그램 공동 개발해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오는 13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전국 특수학교 중학생 및 인구소멸지역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서워요’ 라는 제목의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국립생태원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구성되었다.

주요 내용은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후변화가 산림 생태계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배우며 씨앗볼(ball), 팝업북 만들기 등 체험활동도 함께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기간은 7월 2일부터 12일까지이며, 교육비는 무료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누리집(www.bdn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창술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이번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기후변화 위기와 탄소중립의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기후변화가 산림 생태계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기획됐다” 며 “본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담당 부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수목원서비스본부 수목원교육실	책임자	실 장	남춘희 (054-679-0901)
		담당자	주 임	전수향 (054-679-0904)

기후변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서워요**

이름



1.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국립생태원,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과 협력해 공동 개발한 비대면 교육프로그램 ‘기후변화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무서워요’ 활동지



2. 비대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모습